문성헌 선생님이 열어가는 울산발명영재교육

우지원 발명기자
울산천상중학교 1학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청소년 발명기자단에 뽑힌 울산광역시 천상중 1학년 우지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다니는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청 영재교육원 발명교실 문성헌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문성헌 선생님께서는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789-12 야음중학교내에 있는울산광역시 강남교육청 야음중학교 발명교실을 이끌어 가십니다.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야음중학교(학교장김홍식)는 2004년개교했으며, 울산교육단지내에위치한학교로최근에지어진학교답게 학교건물이나 시설물들이 첨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학교에 2005년 12월 21일 강남교육청 발명교실이 문을 열었고, 2006-2007년까지 특허청의 발명교육 연구학교로 현재 운영되고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발명에 남다른열정을 가지고계시며, 울산 발명 교육을위해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특히 사이버 국제특허아카데미(http://yaeum.ipacademy.net)에서 주관하는 사이버 발명강좌에 1차로 5개 과목을 개설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간(2007. 4. 16 ~ 4. 21)은 선생님의 지도 아래 과학의 날 행사로 발명관련 행사 및 대회를 가졌습니다. 달걀을 안전하게 낙하하는 구조물 만들기대회, 발명캐릭터 및 발명상상화그리기, 폐품을이용한 다양한구조물 만들기대회, 나의발명노트뽐내기대회 등각종발명관련 체험활동 및 발명대회가 학생들의 관심과 호기심 속에서 치러졌고, 이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발명의식고취와 성취감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지역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 발명교실을 열어 비즈공예를 이용한 나만의 악세사리 만들기, 아로마 비누만들기를 통해 지역과 함께하는 발명교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훌륭하신 선생님 밑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게 가슴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선생님의 지도 아래 열심히 배워서 세계를 빛낼 인물이 될 것입니다.